

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으로 치료된 중추성 원인의 연하장애 3예

서울대학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

정 은 재

연하장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추성 원인에 의한 것이다. 다양한 중추성 원인에 의해 1차적, 혹은 2차적 cricopharyngeal dysphagia 가 발생하며, 연하재활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 등을 고려하게 된다. 보톡스 주입술은 현재 까지 cricopharyngeal myotomy에 효과가 있을 것인 지 예측하는 임상적 의미로 문헌에 보고되고 있으나 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술의 경우 시술이 매우 간단하고 환자 및 의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치료성적이 좋다면 우선적 치료방법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. 저자는 중추성 원인으로 내원한 연하장애 환자에서 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술로 개선된 증례3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 1

47세 여자 환자가 이명과 두통이 심하여 시행한 MRI 에서 광범위한 meningioma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

고, 지속되는 연하장애에 대하여 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술 후 호전되었다.

증례 2

25세 여자환자가 어지러움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left lateral medullary infarct 으로 진단받고 지속되는 연하장애에 대하여 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술 후 호전되었다.

증례 3

43세 여자환자가 어지러움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소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지속되는 연하장애에 대하여 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술 후 호전되었다.

Keyword: 연하장애 보톡스 주입술